

중동 무력충돌 불구, 엔비디아 행보에 주목하며 기술주 증시 상승 견인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이끈 지수 상승

- 미 증시는 DOW +0.09%, S&P500 +0.26%, NASDAQ +0.42% 상승. 업종별 대부분 업종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 에너지 섹터 강세가 전체 지수 상승 견인
- 시장 전반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무력공습 및 이란의 협상 중단 대응에 의한 유가 급등 영향으로 에너지주 강세, 업종 전반 약세 흐름
- 기술주는 엔비디아발 훈풍 영향. 지난주 예고한대로 엔비디아는 대만 GTC 및 컴퓨텍스 행사에서 AI PC 신모델 공개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공개 행보

중동 무력 충돌에 유가 변동성 확대

- 장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보도, 중동 무력충돌 통제력 의구 확대.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미국과 진행중이던 휴전 연장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MOU 논의를 공습이 멈출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강경 입장, 국제유가 급등
-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 중재로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시켰으며, 이란과도 대화를 통한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밝힘. 국제유가 상승폭 다소 진정되었으나 WTI \$92.5(+5.9%), Brent \$95.4(+2.7%)
- 중동 여파에 의해 달러인덱스 99.1로 강세

제조업 지표 전월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한 경계감

- 5월 ISM 제조업 PMI 54.0, 전월·컨센 상회, 4년래 최고치. 세부지표상 기업활동(54.3) 및 신규주문(56.8) 상승, 고용(48.6) 및 재고(49.9) 위축국면 유지중이나 일부 개선, 가격(82.1) 상승국면 유지이나 일부 완화
-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55.1, 전월비 개선, 컨센은 하회. S&P 글로벌은 중동전쟁 이후 기업들이 가격상승과 공급차질을 우려하며 재고 축적에 나선 결과로서 생산과 수요가 부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NVDA	엔비디아	+6.3%	대만 GTC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 CEO는 ARM 기반 차세대 PC 프로세서 'RTX 스파크(N1X)' 공개. 올가을 MS, 델, HP 등 새로운 PC 라인업을 통해 출시 예정. 역대 최고 효율의 칩으로 소개되며 하드웨어 파트너사 추가 동반 견인. 반면 인텔, AMD, 퀄컴 등 경쟁사는 약세. ARM(+15.7%)은 엔비디아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온디바이스 AI 시장 내 IP 채택 확대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
DELL	델테크놀로지	+10.7%	실적발표 이후 골드만삭스는 목표주가를 \$230→\$500으로 상향 조정, 투자이견 '매수' 유지. 골드만삭스는 '27, '28, '29회계연도 EPS 추정치를 평균 41% 상향 조정
MSFT	마이크로소프트	+2.3%	빌드 컨퍼런스에서 AI 및 개발자 중심 업데이트 발표 예정. 클라우드 대신 윈도우 11 환경에서 실행되는 온디바이스 AI 모델을 강조 및 기업용 추론 모델 'MAI-Thinking-1' 및 'MAI-Image-2.5' 공개 예정. 또한 코파일럿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고 AI 에이전트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우트'가 포함된 앱 계획을 발표(늦여름 프리뷰 출시) 예정
TSLA	테슬라	-4.6%	오픈AI의 전담 로봇 부서 '오픈AI 로보틱스' 출범 소식. 강력한 경쟁사 등장에 따른 우려로 추가 약세. 샘 알트먼 CEO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숙련 노동을 시작으로 모두를 위한 개인용 로봇으로 확장하여 물리적 세계에서 사람들을 돕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의 기존 라인을 옵티머스 전용 조립 셀로 개조 중이며, 7~8월 중 완공 및 연산 100만 대 규모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XOM	엑슨모빌	+2.8%	지정학 리스크 재부각되며 반등한 국제유가에 추가 강세. 쉘(+1.9%), BP(+2.6%) 등 정유 섹터 동반 강세